

김보경 ‘박지성 7번’ 받았다

주목받는 등번호

9

손흥민
(울집이의 상징)

10

박주영
(대표팀 애이스)

1

정성룡
(주전 골키퍼)

월드컵 태극전사 등번호 확정

‘구레의 아들’ 김보경(25·카디프시티)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한 ‘영원한 캡틴’ 박지성의 등번호 7번을 물려받았다. 광주 출신의 ‘중원의 사령관’ 기성용(25·선덜랜드)은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에서 사용한 16번을 다시 달고, 2014 브라질 월드컵 무대를 진두지휘한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코칭스태프들이 회의를 통해 선수들의 등번호를 확정했다”며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선수들이 선호하는 번호를 위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박지성이 남겨놓고 떠난 7번을 누가 이어받느냐에 쏠렸고, 그 주인공은 지난 2001년 1월 박지성이 대표팀 은퇴를 선언할 때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한 김보경이 됐다.

박지성은 2006년 독일월드컵과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연속으로 7번을 달고 활약했다. 특히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는 7번과 함께 주장 완장을 달고 한국 축구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끌기도 했다.

지난 3월 그리스 평가전에서도 7번을 달았던 김보경은 최근 “월드컵 무대에서 7번을 받으면 아주 기쁠 것 같다”고 말

기성용, 남아공 때와 같은 ‘16’

홍정호, 홍명보 뒤를 이어 ‘20’

했는데 이번 월드컵을 통해 소원을 이뤘다. 김보경은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6번을 맡은 바 있다.

대표팀의 공격과 수비를 조율할 ‘중원의 사령관’ 기성용은 남아공월드컵에서 사용한 16번을 달고, 8강 진출을 지휘한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기성용은 허리를 책임지는 키 플레이어로 중거리 슛과 패스가 일품이다.

‘제2의 홍명보’로 불리는 홍정호(25·아우크스부르크)는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의 전유물이었던 20번을 물려받았다. 조선대 출신 홍정호는 홍명보 감독이 뛰던 그 포지션에서 한국 수비진을 지휘해야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경기 수원에서 태어났지만 전남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축구와 인연을 맺어 전남축구를 계승한 ‘축문의 지배자’ 윤석영(24·퀸스파크 레이저스)은 3번을 부여받았다.

광양에서 기량을 닦은 ‘최연소 프리미어리거’ 지동원(23·아우크스부르크)에게는 19번이 주어졌다. 그는 프로 데뷔 1년 반만에 축구종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일궈낸 활동반경이 넓고 양발을 모두 쓰는 최전방 공격수다.

원톱 스트라이커 박주영(왓퍼드)은 2006년 독일월드컵부터 2010년 남아공월드컵, 2012년 런던올림픽 때까지 출근 달아온 10번을 받았다.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은 전통적으로 공격수의 상징인 9번을 등에 새기게 됐다. 스트라이커의 번호인 9번을 주면서 믿음도 한껏 부여했다. 돌파가 빠른 선수를 상징하는 11번은 이근호(상주)에게 돌아갔다.

◇축구 대표팀 등번호

▲GK=정성룡(1번)·김승규(21번)·이범영(23번) ▲DF=김진수(22번)·윤석영(3번)·김영권(5번)·황석호(6번)·홍정호(20번)·궤대휘(4번)·이용(12번)·김창수(2번) ▲MF=기성용(16번)·하대성(8번)·한국영(14번)·박종우(15번)·손흥민(9번)·김보경(7번)·이정용(17번)·지동원(19번) ▲FW=구자철(13번)·이근호(11번)·박주영(10번)·김신욱(18번)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산악연맹, 전국 등반대회 종합 2위

전남대 女대학부 1위...콜핑 후원

광주시산악연맹이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에서 울산시산악연맹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대한산악연맹(회장 이인정)은 지난 17~18일 충남 천안시 광덕산 일원에서 전국 16개 시·도연맹 소속 145개 팀(3인 1조) 435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47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시산악연맹은 14개 팀이 출전해 여자대학부 1위(전남대학교), 남자대학부 2위(전남대학교), 남자일반부 3위(광주학생산악연맹OB), 여자일반부 3위(광평주 등반교실)를 각각 기록했다. 종합 순위는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대한산악연맹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남녀 고등부·대학부·일반부·장년부 등 8개 부문에 145개 팀(3인 1조) 435명의 선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평가는 이론시험과 암벽등반, 독도법,



제47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에서 준우승한 광주시산악연맹 등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콜핑 제공>

응급처치, 팀당 30kg 이상의 배낭 무게를 나눠 짊어지고 뛰는 체력테스트와 최종 점검 등을 종합해 순위를 매겼다.

이번 대회는 아오도어 업제 (주)콜핑과 (주)BTR이 공식 후원했다. 박만영 콜핑·BTR 회장은 “전국등산대회가 한 해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전국 3000만 명의 등산 인구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산악연맹과 협조해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산악문화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출신 이특영, 양궁 월드컵 금 쏘았다



19일 콜롬비아 메데린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 2차 월드컵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합작한 국성 출신 주현정, 광주 출신 이특영, 정다소미. <대한양궁협회 제공>

광주 출신 이특영(광주시청)이 국가대표로 올해 처음 출전한 양궁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진혁과 조를 이룬 이특영은 19일(한국 시각) 콜롬비아 메데린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WA) 2차 월드컵 혼성전 결승에서 브

라질의 비니시우스 탈메이라·사라 니키틴 조를 5-1로 꺾고 우승했다. 이특영은 또 주현정(현대모비스·국성 출신), 정다소미(현대백화점)와 함께 사대에 선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멕시코를 6-2로 이겨, 동메달을 추가했다.

태극 전사들은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양궁의 저력을 유감없이 내보냈다.

남자 대표팀은 메달을 싹쓸이 했다. 이승윤·오진혁·김우진이 개인전에서 각각 금·은·동메달을 획득, 시상대를 점거했다. 신에 이승윤(코오롱)은 오진혁을 세트점수 6-0(29-26, 28-27, 30-29)으로 완파했다. 양궁 개인전 세트제에서는 각 세트를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을 주고 6점 이상을 먼저 내면 승리한다.

게다가 남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남자 전 종목의 메달을 휩쓸었다. 단체전에서는 김우진·구본찬·오진혁이 조를 이뤄 인도를 세트점수 5-4(56-52, 58-57, 54-59, 58-59, 30-28)로 꺾었다.

여자 대표팀은 정다소미가 개인전 결승에서 독일의 리사 연루를 6-0(28-24, 28-25, 30-25)으로 꺾었다. 올해 국가대표 1진에 복귀한 그는 2011년 월드컵 개인전에서 우승한 뒤 3년 만에 다시 정상상을 밟았다. 주현정은 여자부 동메달 결정전에서 러시아의 나탈라 에르디니에바에게 4-6으로 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